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8호

(2026/봄)

제1저자 whkukim@hoseo.edu

기후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요인들의 극복방안 및 그 실행을 위한 사회적 동력에 대한 연구

김완구(호서대학교 · 철학 · 부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4.58.243>

I. 시작하는 말

■ 오늘날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형성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혹은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를 일으켜 지구 평균기온을 유례없는 속도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기후체계의 변화와 각종 기상이변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상이변들은 1차, 2차, 3차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인간의 삶의 터전은 물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런 기후변화는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게 하여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분노, 무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는 우울장애의 일종인 이른바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등장하기까지 했다.¹ 그야말로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혼란으로 공기, 물, 토양, 숲, 동물군과 식물군, 해류, 해안선, 농업, 재산 가치, 국제 관계 등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우려나 예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 이 논문은 2024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24-0240-01)

1 <심리적 행복을 위협하는 날씨-기후 우울증>, 《정신의학신문》, 2024년 1월 30일, 또는 <기후변화가 낳은 우울증,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왜냐면]>, 《한겨레》, 2024년 6월 19일.

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현재 지구의 상태를 온몸 곳곳에 암세포가 번진 말기 암 환자에 비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이런 기후 변화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험 중에서도 단연 최대의 위험 혹은 최악의 재앙으로 꼽힌다.² 이렇듯 기후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와 그 심각성 및 생태적 파멸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함에도 사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인류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론적이고 실천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나름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한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이런 여러 노력이 어떤 이유들로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데일 제이미슨(Dale Jamieson)이 기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도전들이라고 말한바 있는 이른바 ‘환경적 실천에서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들’³, 즉 ‘기후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요인들’로 얘기되는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요인들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극복할 방안이 어떤 것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안들이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속해서 생존하기 위해 아무리 환경 의식 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차원에서 의식의 전환이나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 실천을 위한 정신적 동력을 만들어 낸다

2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3*, 2023,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risks-report-2023/>, p.6, 또는 한겨레, “과학자들이 꼽은 세계 5대 위험,” 2020.2.12.

3 Jamieson, Dale, *Reason in a Dark Time: Why the Struggle Against Climate Change Failed- and What It Means for 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103.

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든 심리적 장애요인 등과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로서의 물질적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후 행동과 같은 실천 또한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끝으로 실천을 뒷받침해줄 그런 사회적인 동력으로는 어떤 것이 요구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느린 폭력으로서의 기후재앙과 그 해결의 어려움

■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이에 대해 무신경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하다고들은 하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더디고 사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지기는커녕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욱 나빠졌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때는 이미 늦었다고 아예 한탄하며 체념 섞인 푸념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들과 같은 직면한 문제들의 뒷전으로 밀려 등한시되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많은 이들은 이런 현상과 상황이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집합적 행위의 환경문제들(longitudinal collective action environmental problems)’이라는 특성에서 비롯한다고 지

적해왔다.⁴ 말하자면 그런 환경문제들은 서로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별로 관련도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매일 매일 일상적으로 별다른 의도 없이 무심코 행하는 개별적인 행위들과 그 결과들이 점차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서서히 그리고 간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가 복잡하지만,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게 문제 자체가 거대하고 복잡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환경문제는 개인으로부터 지구 전체까지 모든 것이 얹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세대가 한데 묶여있는 고차방정식과 같은 문제라는 것이다.⁵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환경문제의 이런 특성이 바로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리게 된 이유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인류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그토록 심각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서로 경합하는 여러 의제 사이에서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후 위기와 같이 간접적으로 게다가 느려터지게 다가오는 복잡한 의제가 당장 먹고사는데 직접적이고도 시급하게 필요한 다른 정치 경제적 의제들을 제치고 최우선 순위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⁶

롭 닉슨(Rob Nixon) 또한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라는 책에서 환경문제의 이런 특성을 ‘느린 폭력(slow violenc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느린 폭력’이 의미하는 바는 보이지 않게

4 Sandler, Ronald, "Ethical Theory and the Problem of Inconsequentialism: Why Environmental Ethicists Should be Virtue Oriented Ethicists", in Philip Cafaro · Ronald Sandler(ed.), *Virtue Ethics and the Environment*, Springer, 2010, pp.167~183.

5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125쪽.

6 같은 책, 126쪽.

서서히 일어나는 폭력, 즉 시공을 가로질러 여기저기 널리 퍼져 지체된 파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이라는 것이다.⁷ 말하자면 느린 폭력은 조금씩 야금야금 파괴해 들어가는 일반적으로는 전혀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닉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이고 공간적으로는 강렬하거나 극적인 사건이나 행동으로서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발발하는 것으로서 이해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과는 다른 종류의 폭력, 즉 극적이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재앙적인 파괴력들이 넓은 시간적 규모에 걸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이런 느린 폭력의 비가시성은 이른바 느린 폭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환경적 재앙과 관련해 힘을 모아 단호하게 행동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저해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적 장애물들(representational obstacles)을 생기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⁸

그런데 개인적인 인간의 단순한 감각이나 인지 능력에 좀처럼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고 좀처럼 표현으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 많은 과학자 혹은 상대적으로 기후 전문성과 과학적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들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고 그 위험성을 경고해주고 있다.⁹

그래서 최근에 심각성을 더하는 이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먼저 1980년대 중반부터

7 Nixon, Rob,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p.2, 롭 닉슨 지음, 김홍욱 옮김,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18쪽.

8 같은 책, 18~19쪽.

9 현재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라는 데서 이미 1988년 이후 지구 기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 과학적 지식의 성장을 반영하고 경고 수위를 높여 가면서 보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주고 있다.

기후변화가 국제정치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이래로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국제정치적 관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과 자국 중심논리 그리고 불신 등으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적 협상이 이루어지는 회의장에서는 어디에서든 공정함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편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해결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¹⁰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기술이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과학 기술적 해결책들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은 아직은 어설피 기술이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편익과 폐해를 동시에 수반하는 과학기술의 양면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결은 해결하는 만큼의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거나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이런 기술들은 개인이 활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술적 해결책에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완화 및 적응 노력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즉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¹

따라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에서는 우리가 직

10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398쪽.

11 Williston, Byron, *The Ethics of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Routledge, 2019, p.167 & p.181.

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는 근본적으로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인간의 정신상태나 마음의 위기라고 하면서 문제는 우리의 통치제도들이나 가치 체계들 그리고 우리의 인식 방법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듯 환경문제나 생태위기가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가짐, 태도 혹은 문화에 의해 초래되었다면, 그 해결도 이러한 인간의 사고나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해결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데일 제이미슨(Dale Jamieson)과 같은 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거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는 경제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에 의해 부여되거나, 혹은 이 둘의 조합에 의해 가장 잘 부여된다는 얘기다.¹²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¹³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윤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변화가 드러내는 문제들은 상식적인 도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실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테면 앞서도 얘기한바 있듯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장기적인 집합적 행위의 문제들(LCAPs)’이라는 것이고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문제라는 특징을 갖는데,¹⁴ 이러한 특징들은 윤리적인 실

12 Williston, Byron, *The Ethics of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Routledge, 2019, p.104.

13 Ibid., p.144.

14 Sandler, Ronald, “Ethical Theory and the Problem of Inconsequentialism: Why Environmental Ethicists Should be Virtue Oriented Ethicists”, in Philip Cafaro · Ronald Sandler(ed.), *Virtue Ethics and the Environment*, Springer, 2010, p.168.

천과 관련하여 ‘사소함의 문제(the problem of inconsequentialism)’라고 하는 곤란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¹⁵ ‘사소함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으로서 하는 행동들은 오로지 기후변화의 위협에 사소한 영향을 미치기(혹은 때때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자원의 재활용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¹⁶ 또한 지구적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기여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약간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느리게 발생하고 간접적이며 복잡하고 산발적이라는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밖에 윤리적 실천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 문명이나 석유문명으로 대표되는 산업문명 혹은 과학기술문명에 몰들어 있는 우리의 행동양식과 생각들은 이미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바뀔 것 같지도 않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생각이 바뀌고 온실가스 안정화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해양의 관성 때문에 온도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해수면은 몇백 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¹⁷ 이미 1990년 8월 말에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발간한

15 Sandler, Ronald, “Ethical Theory and the Problem of Inconsequentialism: Why Environmental Ethicists Should be Virtue Oriented Ethicists”, in Philip Cafaro · Ronald Sandler(ed.), *Virtue Ethics and the Environment*, Springer, 2010,

16 김완구, 『기후변화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67쪽.

17 Didier Hauglustaine, Jean Jouzel, Hervé Le Treut, *Climat : chronique d'un bouleversement annoncé*, POMMIER. 디디에 오글뤼스텐느 · 장 주젤 · 에르베 르 트뤼트 지음, 박수현 옮김(2009), 『기후: 예고된 재앙』, 알마, 2004, 102쪽.

기후변화에 관한 첫 번째 <1차 평가종합보고서>에서도 우리가 당장 탄소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온실가스의 누적효과 때문에 기후가 안정 되려면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다.¹⁸ 기후시스템이든, 생물시스템이든, 사람의 행동이든 생각이든 자신의 변화 리듬을 교란하는 현상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얘기다.¹⁹ 이는 이미 기후변화 문제는 임계점을 지나 어찌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조치를 하고 발버둥을 쳐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 중 절반 이상이 불과 30년 사이에 배출된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²⁰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 알고 나서도 그것을 몰랐을 때만큼이나 여전히 대책 없이 지구를 파괴해 온 셈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까지 기후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요인들과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환경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적 실천의 장애가 되는 환경문제의 특성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지는 한계 및 현황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이미션과 같은 이도 또한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환경문제는 대체로 ‘확률적’이고, ‘복합적’이고, ‘간접적’이고, 종종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위협을 초

18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368쪽.

19 Didier Hauglustaine, Jean Jouzel, Hervé Le Treut, *Climat : chronique d'un bouleversement annoncé*, POMMIER, 2004. 디디에 오글뤼스텐느 · 장 주젤 · 에르베 르 트뤼트 지음, 박수현 옮김, 『기후: 예고된 재앙』, 알마, 2009, 133~134쪽.

20 Wallace-Wells, David, *The Uninhabitable Earth: Life After Warming*, Crown, 2020. 김재경 옮김, 『2050 거주불능 지구』, 추수밭, 2020, 17쪽.

래한다고 말한다.²¹

그러면서 제이미슨은 우리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의 미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몇 가지 요인들로 ‘집단행동의 문제’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이야기한다. ‘과학적 무지’라든가, ‘과학과 정책을 연결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저항’, ‘정치적 당파성’, 그리고 특히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취약한 정치적 제도들’ 등을 지적한다.²² 그런데 특히 제이미슨은 환경적 실천에서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작동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도전들이라는 것이다.²³ 따라서 무엇보다도 나는 다음 장에서 기후 행동의 장애가 되는 이런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기후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요인들

■ 실은 제이미슨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실천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왔다. 리차드 탈러와 카스 선스타인(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은 『넛지: 파이널 에디션(Nudge: The Final Edition)』(2021)이라는 책에서 환경적 실천의 심리적 장애요인들에 관해 얘기

21 Jamieson, Dale, *Reason in a Dark Time: Why the Struggle Against Climate Change Failed- and What It Means for 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61.

22 Ibid., p.3.

23 Ibid., p.103.

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르는 위험과 같이 보다 더 심각한 나중의 위험보다 코로나19나 테러와 같이 지금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 중시 편향’이나, 온실가스와 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저성(salience)’ 등이 그런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²⁴ 그리고 동일한 가치의 이득과 손실을 경험하더라도 이득에 따르는 만족보다 손실에 따르는 고통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심리 현상인 ‘손실 회피’ 등의 심리적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²⁵ 즉,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쓰라림의 강도는 그것과 똑같은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의 2배 정도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기후세’라는 세금이 새로 생기고 모든 사람이 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런 손실 회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⁶

특히 조지 마셜(George Marshall)은 『기후변화의 심리학(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2018)이라는 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런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지적하는데 이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 책의 첫머리에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외면하고자 자신이 아는 사실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했으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면 뭔가를 고의로 무시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24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pp.282~283.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움,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386~387쪽.

25 같은 책, 389쪽.

26 같은 책, 69쪽.

관해서 묻는다.²⁷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⁸ 즉 그는 기후변화를 과학 대 이권, 혹은 진실 대 허구의 미디어 싸움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궁극적인 도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딱히 알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음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진화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는 기후변화를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지, 왜 우리는 기후변화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지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먼저 조지 마셜은 우리 인간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을 진화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²⁹ 그는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대니얼 길버트(Daniel Gilbert)를 인용하여, 오랜 시간 진화하는 동안 인간의 심리는 개인적인 자극, 갑작스러운 자극, 비도덕적인 자극, 현재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 복잡하고 생소하며 천천히 진행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장기적으로 미래의 세대 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는 이중 어떤 자극도 유발하지 않고 어떤 것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한다.³⁰

제이미션 또한 유사하게 『암흑시대의 이성』이란 그의 책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어려운 도전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행동을 방해하는

27 Marshall, George,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USA 2014.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바람, 2018, 12~13쪽.

28 같은 책, 같은 곳.

29 같은 책, 74쪽.

30 같은 책, 75쪽 또는 322쪽.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인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³¹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인간은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런 문제를 인지하도록 진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³² 이를테면 인간들은 진화 과정에서 중간 크기 물건들의 활발한 움직임만을 잘 지각하도록 만들어졌지 대기 중에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가스가 천천히 형성되고 작용하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또한 조지 마셜이 얘기한 바와 유사하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클 수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종종 그런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월러스 웰즈(Wallace-Wells)는 이와 같은 것을 ‘규모’ 편향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기후변화가 너무 규모가 거대하고 영향이 강렬해서 마치 우리가 태양 빛을 보고 피하듯 반사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한다.³³

조지 마셜 또한 우리가 기후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불안과 그것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한다.³⁴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는 다른 중대한 위협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는 우리의 뇌가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도록 이끌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편향을 작동시켜 서로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기후변화를 영구히 뒷전으로 미루어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지 마셜은 대니얼 카너먼(Daniel

31 Jamieson, Dale, *Reason in a Dark Time: Why the Struggle Against Climate Change Failed- and What It Means for 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102~103.

32 Ibid., p.102.

33 Wallace-Wells, David, *The Uninhabitable Earth: Life After Warming*, Crown, 2020. 김재경 옮김, 『2050 거주불능 지구』, 추수밭, 2020, 243쪽.

34 Marshall, George,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USA, 2014.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바람, 2018, 326쪽.

Kahneman)을 인용하여 기후변화는 인지 편향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고 한다.³⁵ 기후변화는 이익은 없고 손실만 걱정해야 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당연히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기 손실이 아니라 장기손실이면 더욱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기후변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조합이라고 한다.

조효제 또한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기후행동을 외면하는 태도의 뿌리와 심리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거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행동에 잘 나서지 않는 이유들, 즉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한다.³⁶ 그는 먼저 그런 행동을 나 말고 누가 대신해주면 좋겠다는 무임승차 현상도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많은 장벽을 얘기하지만, 기후 행동과 같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정보에 대해 대응하는 ‘청개구리 심보’라 불리는 ‘심리적 반발’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소극적 무관심’이나 기후변화를 황당한 주제로 간주하여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공격적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한다.³⁷ 그리고 기후변화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적 할인’ 등등 흥미로우면서도 심각한 여러 가지 장벽들에 대해서 소개한다.³⁸ 이 밖에 그는 기후변

35 Marshall, George,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USA, 2014.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버람, 2018, 90쪽.

36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134~149쪽.

37 같은 책, 140쪽.

38 같은 책, 141~143쪽.

화와 같은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왜소하게 느끼고 자기 힘의 한계를 절감하는 ‘행동효과의 회의적 인식’이라는 장애요인도 있다고 한다.³⁹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장애요인들과는 거꾸로 기후변화를 너무 염려한 나머지 자책이나 분노,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⁴⁰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환경적 불철저함을 책망하는 ‘녹색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기후 불안’ 또는 ‘생태 불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심지어 죄책감을 넘어 무력감, 슬픔, 상실감, 또는 기후재난의 트라우마로 인해 임상적 문제로까지 발전해서 초조, 우울, 강박, 답답함, 불면 등을 호소하는 ‘생태 불안장애(eco-anxiety)’가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한다.⁴¹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또한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인지적 편견’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고 있고 또 그 위험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 위험을 간과하고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느낌을 틀리게 만드는 ‘인지적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²

그는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의 연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브루스 슈나이어에 따르면, 첫째로 사람은 드물고 장엄한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데 반해 일상적으로 빈번한 위험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흔하고 친숙한 대상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대상, 미지의 대상을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39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140쪽.

40 같은 책, 143쪽.

41 같은 책, 143쪽 또는 166쪽.

42 김경일 강연, 『왜 우리는 기후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간의 심리』, [환경 읽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0rr_1uSazc

이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끔 타는 비행기보다 매일 타는 자동차를 덜 위험하고 혹은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보다 계단이 덜 위험하고 혹은 더 안전하다고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테러보다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내가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흡연의 위험은 과소평가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매우 희박한 테러의 위험은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위험하다는 느낌과 판단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대체로 객관적인 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인간 심리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말한 위험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모두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기 힘든 게 바로 기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후는 미지의 대상이 아니라 늘 우리가 접하는 너무 일상적이고 친숙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친숙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게다가 기후는 구체적인 것도 않은 거대한 자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북극곰이 멀리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보다 오늘 당장 내가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우리 집 아이가 다치는 그런 이야기에 훨씬 더 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기후 위기는 몇십, 몇백 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의 위험 인식에는 이런 확률적 숫자들이 별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생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기 어려운 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나 생각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다. 조지 마셜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기후변화는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심리적 장애 역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⁴³

IV.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넛지’

■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같이 이렇게 느리고 멀게 느껴지는 위협이나 폭력에 작용하는 수많은 편향이나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당장 이런 위협이나 그에 관한 편향에 대한 정보들을 알리거나 교육하고 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민하여 극복하게 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떠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흔히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최선의 혹은 최상의 이유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⁴⁴ 그런데 인간의 제한적 상황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유별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 파이널 에디션』이라는 책에

43 Marshall, George,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USA, 2014.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바람, 2018, 329쪽.

44 Rachels, Jame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McGraw-Hill, 2006. 노헤런 · 김기덕 · 박소영 옮김, 도덕철학의 기초, 도서출판 나눔의집, 2006, 44쪽 또는 48쪽.

서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든 세파를 헤치고 나아가려고 바쁘게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하나를 깊고 오래 생각할 여유가 없고 동원할 수 있는 주의력도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⁴⁵ 또한 경제학 교과서에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서의 인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처럼 생각하고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처럼 많은 기억을 저장하며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처럼 강력한 의지력을 행사한다고 가르치지만 현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내와 자식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며 툭하면 숙취로 머리가 흐리멍덩해지곤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⁴⁶ 즉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인지적 편향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이런 식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김경일은 이런 편향을 극복하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의 심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⁴⁷ 일례로 보험회사들은 돈을 길게 부어 먼 미래에 혜택을 보는 ‘은퇴설계보험’ 광고와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실손보험설계’ 광고를 할 때 이런 심리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은퇴설계보험 광고는 행복한 노부부의 삶을 보여주고, 반대로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실손보험 광고는 괴롭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먼 미래에 결과가 나오는 일에는 소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당장

45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터스북, 2022, 83쪽.

46 같은 책, 36쪽.

47 김경일 강연, 「왜 우리는 기후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간의 심리」, [환경읽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0rr_1uSazc

눈앞에 닥칠 일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을 피하려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이 두 종류의 보험 상품을 광고하여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보험을 판매하는 법을 시행착오를 거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라고 하는데, 김정 일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접근 동기를 자극해야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환경 캠페인도 즐거움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지 심리학자로서의 본인은 기후 캠페인의 프레임이 “500년 후에 지구가 물에 잠길 것이니 지금부터 조심하라”는 미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50년 후 당신의 자손들에게 오늘의 아름다운 하늘을 만끽하도록 하고 싶지 않으신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지점에서 이것이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시한 ‘넛지(nudge)’라고 알려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만일 당신이 어떤 행동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낸 다음 그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면 된다고 말한 바도 있는데, 넛지 또한 행동과학 이론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데에 인간의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넛지’는 2009년 처음 출간된 탈러와 선스타인의 행동경제학책 『넛지(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보통 ‘넛지’는 강요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혹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변

화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⁴⁸

가장 흔히 알려진 넛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이 소변기 밖으로 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소변기의 조준점에 파리를 그려 넣는 것이 있다.⁴⁹ 이렇게 파리를 그려 넣음으로써 소변이 밖으로 튀는 양이 80%나 줄었다고 한다. 이밖에 잘 알려어져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만들어진 지하철역의 건반 모양 계단과 같은 것이 있다. 행동경제학의 일종으로 넛지는 이처럼 사람들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넛지는 이처럼 환경이나 건강을 위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지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여기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하는 전반적인 맥락을 조직하는 것을 ‘선택설계(choice architecture)’라 하고 이것을 조직하는 사람을 ‘선택설계자(choice architect)’라고 부른다.⁵⁰

그런데 이런 선택설계로 넛지하는 것은 일종의 암시를 주는 것과 같다. 선스타인은 이런 예들로 레스토랑 메뉴의 칼로리 표시, 혹은 납부일이 임박했다거나 진료일이 내일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비롯해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기본설정, 신용카드 결제 및 대출금 자동납부 시스템 등을 들고 있다.⁵¹ 정부의 영역에서는 담뱃갑의 시각적 경고, 에너지 효율이나 연비의 의무표기, 식품 영양소 표기, 복지제도 자동가입 시스템 등이 형태는 달라도 모두 넛지의 사례에 해당하고 모두 선택설계라는 것이다. 이런 탈러와 선스타인의 넛지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

48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31쪽.

49 같은 책, 같은 곳.

50 같은 책, 28쪽.

51 같은 책, 22~23쪽.

면서도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간섭주의’에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⁵² 따라서 이런 넛지는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에서 간섭해서 실천 상의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행동을 유도하는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스타인은 넛지가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하기로 마음먹는 데 종종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관심사가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통제 문제’와 ‘행동 편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⁵³ 여기서 자기통제 문제는 음주나 도박과 같은 중독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것은 물론 온갖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⁵⁴ 자기통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현재 편향인데, 이를테면 사람들은 종종 내일보다 오늘에 더 집중하거나 단기적인 쾌락은 추구하고 단기적인 고통은 피하고자 하는데 비록 이런 선택이 삶의 전반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스타인은 사람들이 미루는 버릇이 있고, 타성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는 종종 어떤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하거나 지나친 확신에 가득 차 있어 위험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넛지는 큰 힘이 된다고 한다.⁵⁵ 따라서 넛지는 정보 부족이나 행동 편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삶을 개선해준다는 것이다. 선스타인의 말로 이는 삶의 ‘항행력(navigability)’을 높여준다는 것인데, 말하

52 문경호, 「도덕교육에서 넛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교원교육』Vol. 34, No. 4(2018), 196쪽.

53 Sunstein, Cass R., *On Free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선스타인, 캐스 R.(2022), 『항행력(On Freedom)』, 열린책들, 2022, 22~23쪽.

54 같은 책, 9쪽.

55 같은 책, 23쪽.

자면 원하는 목적지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어떤 목표를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높여준다는 것이다.⁵⁶

탈러와 선스타인은 환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이런 넛지가 정부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부드럽게 환경적 실천을 유도하는 데 사용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점을 2008년 판 『넛지』 14장(2008: 193~224)과 그들이 최종판이라고 이름을 붙인 2021년 판 『넛지: 최종판』 14장(2021: 281~307)에서 그리고 『영향력의 윤리(The Ethics of Influence: Government in the Age of Behavioral Science)』라는 책 7장(Sunstein, Cass R., 2016: 159~186)에서 한 장씩을 할애하여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목록(Green House Inventory, GGI)을 만들어 주요 배출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일종의 넛지라는 것이다.⁵⁷ 즉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넛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제도는 파리협약이 의무사항으로 정하기 훨씬 전인 2011년부터 미국 환경보호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⁵⁸

그리고 탈러와 선스타인은 우리가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친환경 선택지(green option)를 쉬운 선택지로 만드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라고 한다.⁵⁹ 그리고 그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탈러와 선스

56 Sunstein, Cass R., *On Free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선스타인, 캐스 R.(2022), 『항행력(On Freedom)』, 열린책들, 2022, 7쪽.

57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터스북, 2022, 413쪽.

58 같은 책, 414쪽.

59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2021),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p.305.

타인은 이것이 바로 ‘친환경 기본설정(green default)’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방에 아무도 없을 때 전등을 끄는 동작 감지거나 사무실의 자동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것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불편하지 않다면 방에 사람이 없을 때 ‘꺼짐’이나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주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기본값을 설정해놓음으로써 경제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⁰ 그런데 정책이든 기술이든 모두가 이런 종류의 친환경 기본설정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한다.⁶¹

선스타인은 친환경 기본설정의 이런 측면들에 대해 『영향력의 윤리』라는 책에서 종이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⁶² 우리는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기관이든 공공 기관이든 종이 사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종이 사용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들에 호소함으로써 도덕적 설득(권고)을 시도하거나, 종이 사용에 대해 일종의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관련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종이의 총량에 한도를 정하거나[일종의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system)와 같이] 아니면 명령과 금지와 같은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은 이를테면 교육기관과 같은 곳에서 프린터 기본 설정(default printer setting)을 ‘단면 인쇄’에서 ‘양면 인쇄’

60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2021),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p.305.

61 Sunstein, Cass R., *The Ethics of Influence: Government in the Age of Behavior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416.

62 Ibid., p.163.

로 변경하도록 개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년 전에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는 이런 새로운 기본설정값을 도입했는데 첫 3년 동안 종이 소비량을 5,500만 장 이상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결과는 44% 감소하는 효과에 이르는 것으로 4,650그루의 나무와 맞먹는 것이다. 스웨덴의 한 대형 대학에서 실시한 인상적인 실험에서도 종이 소비량이 15% 감소하는 등 상당한 감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간 및 공공 기관에서 기본설정값을 간단하게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종이 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선스타인은 기본설정 규칙들(default rules, 임의 규정)이 이러한 결과들에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4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⁶³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은, 말하자면 선택자들은, 기본설정이 분별 있는 선택설계자들에 의해 정당한 이유로 선택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설정 변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개인 정보가 없는 한 그 기본설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타성과 미루는 버릇때문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만약 경제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여타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설정을 거부하거나 바꾸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할 경우,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결정하지 않거나 하여 계속 현상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본설정 규칙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점(reference point)을 잡아주고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인 규범들과 상호작용하여 이것들을 확립하거나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는 죄

63 Sunstein, Cass R., *The Ethics of Influence: Government in the Age of Behavior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169~173.

책감(guilt)이다. 환경적 맥락에서 녹색 기본설정은 강렬한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이유로 인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적어도 호텔에서 수건을 재사용하거나 종이 아닌 전자 명세서를 받는 경우들과 같이 기본설정값(혹은 임의 규정)이 친환경일 경우, 그리고 기본설정값을 유지해야 할 좋은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을 거부하는 것 혹은 옵트 아웃(opt out, 선택해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러와 선스타인은 이러한 논의로부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끌어낸다. 그들은 결국 일을 쉽게 만들고 자동적인 것으로 만드는 설계상의 해결책들은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⁶⁴ 그런데 행위자의 선택의 자유는 보존하되 그들의 의사결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개입 방식으로써의 넛지가 아무리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해도, 넛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선택자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혹은 넛지는 은밀하며 어떤 점에서 보자면 사람을 조종하는 일종의 속임수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⁶⁵ 그러나 선스타인은 선택의 자유가 소중히 여기어져야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⁶⁶ 정보 부족이나 편향 및 자기통제 문제와 같은 각종 장애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많은 개입과 개혁이 항행력을 강화하고 자유

64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p.305.

65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439쪽.

66 Sunstein, Cass R., *On Free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선스타인, 캐스 R., 『항행력(On Freedom)』, 열린책들, 2022, 117쪽.

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개입과 개혁은 마치 지도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을 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주고, 각자의 취향을 충족시키며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⁶⁷

그런데 물론 탈러와 선스타인도 넷지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고백한다.⁶⁸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더라도 넷지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면 어떤 도움이든 모두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적 차원의 선택설계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이런 논의가 환경적 실천에 무리 없이 응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면서 비판적이고 발전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넷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런 검토는 향후 넷지의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형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⁶⁹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넷지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아무리 좋은 방안이고 넷지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안내가 씨알이 먹히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

67 Sunstein, Cass R., *On Free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선스타인, 캐스 R., 『항행력(On Freedom)』, 열린책들, 2022, 117쪽.

68 탈러, 리처드·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392쪽.

69 강준만, 「왜 ‘넛지’ 논쟁이 뜨거운가?: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6집 2호 (2017), 349쪽.

력과 같은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V.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동력

■ 조효제에 의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온실가스가 무엇이 문제이고 언제까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⁷⁰ 그래서 과학의 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후변화는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해서 사회현실에서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난제 중의 난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으로 롤스톤 3세(Holmes Rolston III)와 같은 이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힘든 고약한 문제”, 즉 종종 인식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불완전하고 모순되며 상호작용하고 변화하는 요구 사항들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문제라고까지도 얘기한 바 있다.⁷¹ 문제의 특성이 이렇다면 환경위기가 과학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한 문제라 하더라도 의식의 전환이나 관점의 전환, 교육 등과 같은 정신적인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실천을 위한 방법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 시스템 혹은 사회적인 물질적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의 극복이라는 목표의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효제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기후 위기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

70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327쪽.

71 Rolston III, H., *A New Environmental Ethics : The Next Millennium for Life on Earth*, Routledge, 2020, p.233.

아야 할 이유가 도출된다고 한다.⁷² ‘지속불가능성의 해체’나 ‘탄소중립’ 같은 목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어도 실천할 힘이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공동체가 강제로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 행동을 통해 전 사회적인 전환을 이루려면 사람들에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전환 역량은 정신적인 차원은 물론 물질적인 차원에서 함께 작동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효제는 먼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서지 않는 장애요인들은 심리적인 장애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화적인 장벽들(장애요인)이 있다고 한다.⁷³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것들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후 행동을 하기 어렵게 유도하는 일종의 넋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를테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승용차를 타는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에서는 그런 삶을 높게 평가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기대치가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기후행동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문화적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⁷⁴ 또한 추운 지방에서는 실내온도를 낮추기가 어렵고 대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물리적인 장벽’이 된다. 또한 ‘경제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저소득층 가구나 영세 업자는 주택이나 일터에서 단열재를 시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집이나 직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정보 접근의 장벽’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조효제는 빈곤이나

72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와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328쪽.

73 같은 책, 150쪽.

74 같은 책, 151쪽.

불평등도 기후행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⁷⁵ 그러면서 그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중의 환경의식과 생태 윤리에만 기대어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곤란하고 급선무인데 안정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기후 대응을 위한 행동이나 희생을 강요하거나 넋트를 하는(은근히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이라는 얘기다.

이런 논의를 위해 조효제는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의 물질주의 성향이 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인식 조사’의 결과에 주목한다.⁷⁶ 이 조사에서 조사자들은 코로나를 겪은 한국인들이 생태환경과 삶의 질,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중시하는 쪽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예상과 달리 여전히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그리고 삶의 질보다는 ‘경제적 성취’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와 성장 중에서도 ‘분배(25.7%)’보다 ‘성장(43.6%)’을 택한 사람들이 많았고,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를 택한 사람(61.1%)도 ‘평등사회’를 택한 사람(14.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런 응답은 한국인들이 코로나와 같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를 겪고도 각자도생형, 경제성장 지향형 사회를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기후행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녹색 전환, 무한 경제성장 모델의 탈피, 지속불가능성의 해체와는 정반대인 가치관을 한국인들이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효제는 한국에서 기후 행동이 더딘 이유가

75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154쪽.

76 같은 책, 328쪽.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과 국민의 광범위한 성장적 경제관이 결합한 탓이 아닌가 하고 진단한다.⁷⁷

이는 두 가지 심각한 함의를 시사하는데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제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런 가치관 때문에, 탄소 의존형 경제성장 모델과 결별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다.⁷⁸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난 극복이 필요할 정도로 난리를 겪고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망은 암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효제는 바로 여기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와 기후 행동의 연결고리가 필요해지는 지점이라고 한다.⁷⁹ 성장 만능의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에너지만 전환하거나 그린뉴딜만 추진한다고 해서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행동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응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⁸⁰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정함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극심하고 부정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기후행동이나 환경적 실천이 씨알이 먹힐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회적 개입과정이 없이 기후 행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조효제는 탄소 경제체제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탄소 경제체제에서 생산된 ‘군자금(軍資金)’이 필요하다고 한다.⁸¹ 보통 ‘군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여기

77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329쪽.

78 같은 책, 같은 곳.

79 같은 책, 같은 곳.

80 같은 책, 330쪽.

81 같은 책, 같은 곳.

서는 일정한 소득, 즉 타인 앞에서 비굴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효제는 이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녹색 전환과정에 필요한 노잣돈’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강상구는 이를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백낙청은 이를 지금의 경쟁사회에 문제가 많지만 “경쟁에서 탈락해서 짓밟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 사회를 바꾸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먹고살 만큼”의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 한다.⁸² 이는 아마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비굴하지 않게 그리고 굶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그것에 적응하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얘기다. 나는 이런 것들이 행동을 은근히 부추기는 작용을 하는 넋지와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기후행동의 기본 조건’ 혹은 ‘기후 행동 기본 자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물질적 빈곤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의 판단 능력은 떨어진다고 한다.⁸³ 형편이 쪼들리는 사람은 발등의 불에만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삶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어떤 극심한 결핍이 발생한 사람은 ‘주의집중의 감금(attention capture)’ 상태라는 것에 빠진다는 것이다. 결핍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왜 기후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을 결정적으

82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330쪽에서 재인용.

83 같은 책, 332쪽.

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⁸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후 후 위기가 귀에 들어 올 리가 만무할 것이고 기후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조효제는 이렇게 당장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와 같은 ‘다루기 어렵고 고약한’ 문제까지 고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 ‘인지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이라고 한다.⁸⁵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강요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일을 은근히 떠맡기는 ‘넋지’ 또한 고통이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따라서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에 대응하여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환 역량을 갖출 방안으로 ‘보편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논자가 많다는 것이다.⁸⁶ 그러면서 조효제는 대표적으로 김종철과 기후학자 사이먼 루이스와 마크 매슬린(Simon L. Lewis & Mark A. Maslin)을 예로 든다.⁸⁷ 김종철은 궁극적으로 탈 성장을 위해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생산노동을 분담하여 좀 더 많은 여가를 누리도록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사이먼 루이스와 마크 매슬린은 보편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이 소비로 끝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회로를 차단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알면서도 호구지책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기후 행동이나 환경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런 활동에 힘을 보탬 수 있는 사회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애기다.

84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332쪽.

85 같은 책, 같은 곳.

86 같은 책, 같은 곳.

87 같은 책, 333쪽.

그러나 물론 강상구와 같은 이들은 양극화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풀리면 경제도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하면서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⁸⁸ 그러면서도 강상구는 기본소득과 환경문제를 연계하여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른바 ‘녹색기본소득’과 같은 것을 구상한다.⁸⁹ 녹색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구상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동거리와 시간 등을 측정해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형식이다.⁹⁰ 이렇게 하면 넋지가 그렇듯이 기후행동이라는 환경적 실천을 부추기는 효과와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강상구는 녹색기본소득을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이동’을 중심으로 설계했으나 이는 독자들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한 기후행동을 참여조건으로 삼아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도 설계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생태사회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이고 그래야 인간 존엄과 지구의 생명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⁹¹ 그런데 이런 구상들은 실제로 경기도 등 몇 군데에서 유사한 형태로 현재 실천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경기도 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도민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설치하고 환경교육에 참여하거나 걷기, 대중교통

88 강상구, 『걷기만 하면 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 기본소득에 관하여』, 루아크, 2019, 7쪽.

89 같은 책, 47쪽.

90 같은 책, 57쪽.

91 같은 책, 179~180쪽.

이용, 자전거 이용, 텀블러 할인 카페 찾기, 고품질 재활용품, 폐가전 제품 자원순환, PC 절전 프로그램 사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생물다양성 탐사,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혹은 플로깅(plogging) 참여, 기후 퀴즈 등 16가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⁹²

이렇듯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넷지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넷지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도 있는 ‘녹색기본소득’과 같은 것이 제안 및 실천되고 있고 이밖에 ‘탄소세 기반 기본소득’과 같은 것들도 구상 및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시행착오나 부작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인류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것들은 단지 환경 관련한 사회적 전환의 역량으로서뿐만 아니라, 특히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노동 중심 소득체계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 혹은 포스트 노동 시대에 환경, 노동, 양극화, 일자리, 빈곤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실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92 기후행동 기회소득 홈페이지, <https://www.ggaction.or.kr/>

VI. 맺음말

■ 지금까지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에 대해 철학적,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중에서 여기에서는 특히 기후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 요인들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일들도 만만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기후 변화 문제는 과학 기술만으로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접근만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접근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거나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를 둘러보더라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실감 나게 그리고 뼈저리도록 깨닫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깨닫고 있더라도 마땅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또 개인적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실천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거나 실천하기 어렵거나 실천이나 행동이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인다. 또한 실천하더라도 그 효과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이 엄청난 기후변화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고작해야 기후변화를 조금 완화할 수 있거나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변화에 그럭저럭 적응해 가며 살아가야 할 처지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흄스 롤스톤 3세와 같은 이들은 기후변화 문제는 종종 인식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불완전하고 모순되며 상호작용하고 변

화하는 요구 사항들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다루기 어려운 아주 고약한 문제”로 얘기하기도 한다.⁹³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후변화는 과학적 사실이고 기후변화를 가로막는 인간의 심리적 혹은 인지적 장애라는 것들도 역시 심리학이라는 과학에서 얘기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지 마셜 또한 기후변화는 시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멀게 느껴지는 위협에 작용하는 수많은 편향을 헤치며 나아가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⁹⁴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 그저 심리적인 장애나 고차방식과 같은 난해함이나 불확실성을 들먹이며 체념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정치, 경제, 종교, 철학, 윤리,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동원하여,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든 완화하기 위한 것이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든 무슨 방안이든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완벽한 대처 방안이든 결함을 가진 불완전한 대처 방안이든 이것들은 경쟁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당연히 이런 노력이 복잡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곧바로 그리고 말끔하게 해결해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기후비상사태’니 ‘인류 최악의 재앙’이니 ‘인류 멸종의 시그널’이니 하는 자극적인 표현들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전에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나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 철학자들이 늘어나는 인구를 먹이는 데 충분한 식량을

93 Rolston III, H., *A New Environmental Ethics: The Next Millennium for Life on Earth*, Routledge, 2020, p.233.

94 Marshall, George,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USA, 2014.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바람, 2018, 329쪽.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한 인구는 기아, 질병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만 억제된다는 비참한 가설이나 극단적인 치유책을 제시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의 강압적인 방식이나 전쟁과 같이 극단적이고도 급진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⁹⁵ 아니면 막다른 상황에 몰려 무력하게 종말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유쾌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무력하게 종말을 맞이 않기를 바란다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이런 고민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윤리적 논의가 행위해야 할 최선의 이유를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찾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이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고민은 절망에 가까운 현실적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얼마간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이는 그저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야 하는 수많은 길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 여유롭고 한가한 논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마 우리 후손들은 우리와는 다른, 말하자면 훨씬 더 심각하면서도 절박한 기상이변이나 이른바 극한 기후에 맞서서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나마 이런 일말의 노력조차도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포기하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95 Steiguer, Joseph Edward de, *The Origins of Modern Environmental Thought*,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6. 조셉 스타이거 지음, 박길용 옮김, 『현대 환경사상의 기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22~23쪽.

- 강상구, 『겉기만 하면 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 녹색 기본소득에 관하여』, 루아크, 2019.
- 강준만, 「왜 ‘넛지’ 논쟁이 뜨거운가?: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6집 2호(2017), 349~388쪽.
- 기후행동 기회소득 홈페이지, <https://www.ggaction.or.kr/>
- 김경일 강연, 「왜 우리는 기후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간의 심리」, [환경읽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0rr_1uSazc
- 김완구, 『기후변화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 문경호, 「도덕교육에서 넛지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교원교육』, Vol. 34, No. 4(2018), 193~215쪽.
- 연합뉴스, “지구종말시계, 종말까지 90초…작년과 같지만 안정 의미 아냐”, [https://v.daum.net/v/20240124044321557\(2024.1.24.\)](https://v.daum.net/v/20240124044321557(2024.1.24.)).
- 정신의학신문, 심리적 행복을 위협하는 날씨-기후 우울증,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077\(2024.1.30.\)](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077(2024.1.30.))
- 조효제 지음,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 2020.
- 한겨레, 과학자들이 꼽은 세계 5대 위험, [https://v.daum.net/v/2020021215175610\(2020.2.12.\)](https://v.daum.net/v/2020021215175610(2020.2.12.)).
- _____, 기후변화가 낳은 우울증,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왜냐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45.html\(2024.6.19.\)](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45.html(2024.6.19.)).

- DesJardins, Joseph R., *Environmental Ethics :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hilosophy*, Fifth edition, Wadsworth, 2013. 김명식·김완구 옮김, 『환경윤리』, 연암서가, 2017.
- Didier Hauglustaine, Jean Jouzel, Hervé Le Treut, *Climat: chronique d'un bouleversement annoncé*, POMMIER, 2004. 디디에 오글뤼스텐느·장 주젤·에르베 르 트뤼트 지음, 박수현 옮김, 『기후: 예고된 재앙』, 알마, 2009.
- Gardiner, Stephen M. Ethics and Global Climate Change in Stephen M. Gardiner, Simon Caney, Dale Jamieson, and Henry Shue, eds., *Climate Ethics: Essential Read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amieson, Dale, *Reason in a Dark Time: Why the Struggle Against Climate Change Failed- and What It Means for 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Lewis, Simon L. & Maslin, Mark A., *The Human Planet: How We created the Anthropocene*, Penguin Books, 2018. 사이먼 L. 루이스(Simon L. Lewis), 마크 A. 매슬린(Mark A. Maslin),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인류세가 빚어낸 인간의 역사 그리고 남은 선택』, 세종서적, 2020.
- Marshall, George, *Don't Even Think about It: Why Our Brains Are Wired to Ignore Climate Change*, Bloomsbury USA, 2014. 조지 마셜 지음, 이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갈마바람, 2018.
- Nixon, Rob,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롭 닉슨 지음, 김홍옥 옮김,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 Perkins, Patricia E., *Climate justice, commons, and degrowth*, Ecological Economics 160(c), 2019, pp.183~190.
- Rachels, James,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McGraw-Hill, 2006. 노헤런·김기덕·박소영 옮김, 도덕철학의 기초, 도서출판 나눔의집, 2006.
- Rolston III, H., *A New Environmental Ethics : The Next Millennium for Life on Earth*, Routledge, 2020.
- Sandler, Ronald, "Ethical Theory and the Problem of Inconsequentialism: Why Environmental Ethicists Should be Virtue Oriented Ethicists", in Philip Cafaro·Ronald Sandler(ed.), *Virtue Ethics and the Environment*, Springer,

2010, pp.167~183.

Steiguer, Joseph Edward de, *The Origins of Modern Environmental Thought*,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6. 조셉 스타이거 지음, 박길용 옮김, 『현대 환경사상의 기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Stephen M. Gardiner, Simon Caney, Dale Jamieson, and Henry Shue, ed., *Climate Ethics : Essential Reading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0.

Sunstein, Cass R., *On Freed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선스타인, 캐스 R., 『항행력(On Freedom)』, 열린책들, 2022.

_____, *The Ethics of Influence: Government in the Age of Behavior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2021.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이경식 옮김, 『넛지(Nudge): 파이널 에디션』, 리더스북, 2022.

_____, *Nudge: improving decision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Penguin Books, 2009. 탈러, 리처드 · 선스타인, 캐스 지음, 안진환 옮김, 『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서스북, 2009.

Trove, Coal consumption affecting climate, <https://trove.nla.gov.au/newspaper/article/100645214>

Wallace-Wells, David, *The Uninhabitable Earth: Life After Warming*, Crown, 2020. 김재경 옮김, 『2050 거주불능 지구』, 추수밭, 2020.

Williston, Byron, *The Ethics of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Routledge, 2019.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2022*, 2022, https://www3.weforum.org/docs/WEF_The_Global_Risks_Report_2022.pdf.

_____, *Global Risks Report 2023*, 2023,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risks-report-2023/>



■ 현재 우리는 ‘인류 최악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 기술적인 노력과 국제정치적인 노력 그리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실천 상의 장애요인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 먼저 그런 노력들이 어떤 어려움에 마주하는지에 대해 환경문제의 특성들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른바 기후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요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시한 ‘넛지(nudge)’와 ‘항행력(navigability)’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면서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위기가 절박하여 의식이나 관점의 전환을 통해 정신적 동력이라든가 실천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도 사회적인 물질적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기후행동이라는 실천은 여전히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주제어: 지구가열화, 기후변화, 기후행동, 심리적 장애요인, 넛지, 항행력, 물질적 동력, 보편 기본소득



A Study of Ways to Overcome Psychological Barriers to Climate Action and the Social Dynamics Required for Implementation

Kim, Whan Ku

(The Hoseo University of Korea · Philosophy · Associate Professor)

■ We are currently facing a climate change crisis that could be described as “the worst catastrophe in human history.” Accordingly, a wide range of efforts are being undertaken to address this crisis,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itiatives, international political cooperation, and philosophical and ethical inquiry. However, these efforts encounter numerous challenges and practical obstacles. This article first briefly examines these challenges in light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issues. It then focuses on the psychological barriers that impede climate action and explores potential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m, particularly through the concepts of “nudge” and “navigability” proposed by Thaler and Sunstein. The article further argues that even if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prompts shifts in awareness and perspective sufficient to generate motivation and support actionable

systems, climate action will remain constrained unless adequate social and material foundations are established. Consequently, it concludes by considering ways to overcome sociocultural barriers and to build the necessary material foundations.

Keywords: global heating, climate change, climate action, psychological barriers, nudge, navigability, material dynamics, universal basic income

- ◎ 투고 접수 2026. 03. 05.
- ◎ 심사 완료 2026. 04. 20.
- ◎ 게재 결정 2026. 04. 27.